

翡翠毛小考

대전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김 영 재

目 次

I. 머리말	IV. 결 론
II. 翡翠의 정의	참고문헌
III. 翡翠毛의 이용	ABSTRACT

I. 머리말

비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玉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三國史記》〈色服·新羅〉를 보면 眞骨女の 褙에 “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라는 규정이 있고, 六頭品女の 腰帶에 “禁金銀絲孔雀尾翡翠毛”라고 되어 있다.¹⁾ 이 규정은 통일신라의 제 42대 흥덕왕이 내린 복식금제에 있는 내용이다. 흥덕왕 9년(834년)에 당시의 복식제도가 문란해져 상하의 구분이 없고, 모두 사치스러운 복장을 즐겨하자, 그러한 당시의 상황에 제동을 걸기 위해 흥덕왕이 내린 조치였다. 표와 요대에 사용된 비취모는 왕비와 최고 귀족인 진골녀에게만 그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진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鳥類로서의 비취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헌기록이나 유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헌과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이용된 비취모의 존재를 반증하

고자 하였다. 또 문헌을 중심으로 장식품에 이용된 비취모의 명칭을 알아내어 현존하는 유물의 명칭을 밝힐 수 있게 하였다.

II. 翡翠의 정의

1. 翡翠의 정의

翡翠는 두 가지 품목을 가리킨다. 하나는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 귀하게 여겨 오던 붉은 색과 초록색을 띤 玉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새[鳥]를 가리킨다. 그러나 새 이름보다는 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 비취를 공작새의 목덜미 털로 잘못 알고 있다. 본문에서는 새로서의 비취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이러한 오인을 수정하고자 한다.

宋代 陸佃이 쓴 《埤雅》에 의하면 비취는 암수 새를 가리킨다. 깃털이 赤紅色인 수컷을 “翡”鳥라 하며, 깃털이 青碧色인 암컷을 “翠”鳥라고 한다. 어린 새는 “翠碧”이라고 한다. 이들은 물고기를 잘 잡기 때문에 魚虎 혹은 魚師라고도 불린다.²⁾

1) 金富弼 《三國史記》卷 33 〈雜志 2〉, 330 ; 서울 : 景仁文化社, 1969.

2) 《埤雅》卷 9, 13 : 翡翠名前爲翡名後爲翠. 舊云曰雄赤曰翡, 雌青曰翠. 其小者謂之翠碧, 一名魚虎, 一名魚師. 性善捕魚. 故曰魚師, 魚虎也. 荊王以其羽毛飾被.

翡翠는 보통 계곡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활동하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 가능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속성을 가졌다.³⁾ 《本草綱目》에는 비취를 水狗 魚虎 魚師 翠碧鳥 翠鳥라고 하고, 그 색이 翠色과 비슷하며 그 깃털은 장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⁴⁾ 또 그 특성을 설명하기를, 물고기를 잡아 먹는 조류로 크기가 큰 것은 재비정도이고 긴 다리는 붉은 색을 띠고 등의 털은 碧色을 띤 翠色이며, 날개는 검은 색이며, 특히 취색의 깃털은 여자들의 首飾에 장식해 썼다고 하였다.⁵⁾ 《爾雅》에는 翠鸛라고 하고 그 깃털은 장식품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다.⁶⁾

翠鳥의 산지를 보면, 《漢書》에 南奧王 趙陀가 文帝(BC179~BC156)에게 “翠鳥 千마리를 바쳤다”고⁷⁾ 하였고, 《後漢書》에는 “哀牢……出蚌珠·孔雀·翡翠”라 하여,⁸⁾ 哀牢(雲南 일대)의 특산물에 翡翠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중국의 남부인 交趾의 특산품에도 翠羽가 포함되었다.⁹⁾ 《異物志》에 “烏滸, 南蠻之別名, 巢居鼻飲, 射翠取毛, 割蚌求珠爲業”이라¹⁰⁾ 하여, 南蠻지역의 烏滸라는 종족이 翠鳥를 잡아 그 깃털을 팔아 생업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오호는 《南州異物志》에 “在廣州之南, 交州之北”라 하였는데,¹¹⁾ 이곳은 중국의 交州와 廣州간의 경계구역을 이룬다. 또 《爾雅》에서도 翠鳥가 交州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¹²⁾

이 외에도 조선시대의 문헌에 翠鳥의 產地에 대한 기록이 있다. 《燕行錄選集》에 暹羅國에서 바치는 貢物에 “翠鳥皮孔雀尾”가 있다고¹³⁾ 하였다. 섬라국은 泰國의 옛 이름인 Siam을 표기한 것이며, 취조피는 곧 翠毛를 말하는 것이다. 또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翠鳥皮今西南洋暹羅以翠鳥皮進貢”이라 하여¹⁴⁾ 취조피는 지금(조선)의 서남양에 있는 섬라국에서 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翠鳥는 지금의 廣州, 雲南 등 중국 남부지역과 인도차이나반도 등지에 분포 서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翠鳥類와 그 특성

翠鳥는 翠鳥科에 속하는 새로, 翠鳥科는 우리나라에서는 木鶇새科(Alcedinidae)라 한다. 모두 14屬으로 나뉘고 86種이 있다. 木鶇새과는 물가나 나무에 서식한다. 남극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분포한다. 몸길이는 약 10~45cm로 목이 짧고 주둥이가 길다. 깃털의 색이 다양하나, 전체적으로 푸른 색과 붉은 색이 주종을 이룬다. 같은 種 안에서는 지리적인 변이가 거의 없고 또한 깃털색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近緣種에서는 매우 흡사해 보인다.¹⁵⁾ 木鶇새科에서는 암수의 깃털색은 대체로 같은 색이다. 기록에서의 비취와 같이 암수가 각기

3) ibid. 14.

4) 李時珍《本草綱目》卷 47, 358 : 臺灣 : 商務印書館, 1981.

5) ibid. 358.

6) 《爾雅》卷 10, 5 : 臺灣 : 商務印書館, 1981.

7) 《漢書》卷 95, 3852.

8) 《後漢書》卷 83, 2849.

9) 《後漢書》卷 31, 111 : 賈琮이 靈帝 中平 元年(184년)에 교지자사로 부임을 하였다. 당시 교지의 정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交趾의 특산물에 나열하였다. : “明珠·翠羽·犀·象·瑇瑁·異香·美木之屬”

10) 《異物志》: 《後漢書》卷 31, 1112에서 재인용.

11) 萬辰《南州異物志》“烏滸, 地名也. 在廣州之南, 交州之北” : 《後漢書》卷 83, 2834에서 재인용 함.

12) 《爾雅》卷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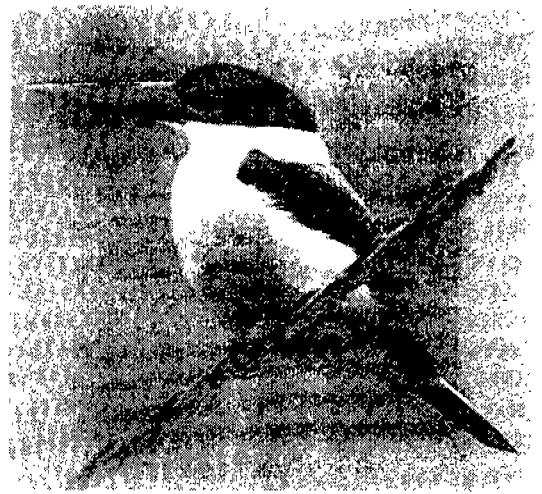
13) 《燕行錄選集》〈心田稿二, 留館雜錄〉, 72 :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76.

14) 李圭景《五洲衍文長箋散稿》卷 22, 442 : 서울 : 동국문화사, 1959.

15) C. M. Perrins · A. L. A. Middtton 《조류 2》, 서울 : 아카데미서적, 1988, 112.



(도 1) 호반새(《鳥類》, 187)



(도 2) 청호반새(《鳥類》, 187)

다른 색인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연종에서는 그 모양이 매우 흡사하다고 하므로 이들을 같은 종류의 새로 본 것이 아닐까 한다. 특히 호반새와 청호반새는 같은 물총새과이며 또 같은 호반새屬인데, 이들을 한 종류로 본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의 크기나 특성이 매우 비슷하고 단지 깃털 색이 붉은 색과 청색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호반새(도 1)는 길이가 27cm정도이며, 암수의 색은 같다. 깃털의 대부분이 붉은 색과 갈색으로 이루어졌고 머리·등·어깨털은 자줏빛을 띤다.¹⁶⁾ 학명은 *Halcyon Coromanda*이며 영어명은 Ruddy Kingfisher이다. 서식지는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이다.¹⁷⁾ 청호반새(도 2)는 길이가 28cm정도이며, 암수의 색이 같다. 머리는 검고, 목·얼굴부분·윗가슴은 담황색이고 등 위쪽은 검고 등, 윗날개 부분은 광택있는 청색이고 아랫가슴에서 배까지는 동황색이며 날개부분은 짙은 남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⁸⁾ 깃털이 푸른색으로 학명은

*Halcyon Pileata*이고 영어명은 Black Capped Kingfisher이다. 서식지는 호반새와 비슷한 말레이반도, 인도차이나반도, 자바 등에 걸쳐 있다.¹⁹⁾

호반새와 청호반새는 크기, 서식지, 물고기를 주로 잡아 먹는 등의 특성이 거의 비슷하며 색상 차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따라서 붉은색이 주종인 호반새를 “翡”鳥로, 청색이 주를 이루는 청호반새를 “翠”鳥라 하여 같은 종류의 암수로 간주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은 오래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翡翠라는 표현은 점차 청색 깃털을 가진 翠鳥로 좁혀져 갔다. 그러면서 청색 깃털을 가진 물총새도 여기에 포함시켜 간 것으로 보인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태국에서 바친 翠鳥는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에서 서식하며²⁰⁾ 魚狗라고도 하며 이것을 翠鳥類라 하였다.²¹⁾ 魚狗·魚師·魚虎 등은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魚狗·魚師·魚虎 등으로 불리운

16) 櫻井良三 《鳥類》, 東京: 世界文化社, 1984,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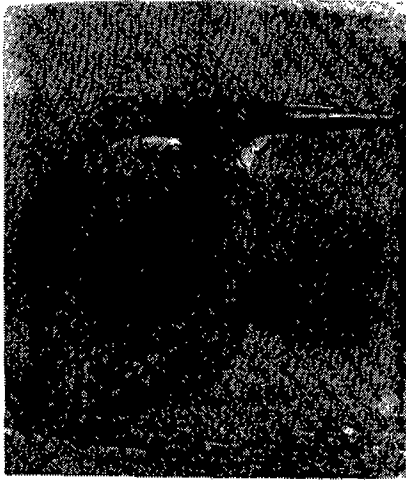
17) C. M. Perrins · A. L. A. Middtton, 112.

18) 櫻井良三, 184.

19) C. M. Perrins · A. L. A. Middtton, 112.

20) 물총새 청호반새 호반새는 우리나라의 여름 철새로 강가에서 서식한다.

21) 李圭景, 卷 22, 442.



(도 3) 물총새(《鳥類》, 187)

것은 청호반새가 아니라 같은 물총새속에 속하는 물총새(도 3)였다. 물총새(Alcedo Attis : Common Kingfisher)는 파랑새목 물총새과 물총새屬에 속한다.²²⁾ 물총새는 몸길이가 17cm정도이며 암수 동색이다. 몸체는 광택있는 청록색이며 목 부위는 희고 가슴은 흰색이다. 부리는 몸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다.²³⁾

청호반새, 호반새와 물총새를 비교하여 보면, 다른 특성은 비슷하나 크기가 10cm정도 차가 난다. 따라서 호반새와 물총새를 같은 쌍으로 보고 “翡翠”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장식품등에 사용한 깃털이 청색 범위로 제한되면서 “翠”鳥에 같은 물총새속에 속하는 물총새가 점차 포함되어 그 깃털을 장식품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翡·翠는 호반새와 청호반새를 지칭한 것이며, 점차 翠鳥로 좁혀지면서 청색 혹은 녹색 깃털을 지닌 물총새도 포함시켜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청호반새와 물총새의 서식지 역시 문헌에 보이는 운남, 광주, 인도차이나반도 등으

로 중복되는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본다.

Ⅲ. 翡翠毛의 이용

홍덕왕 복식금제에 표와 요대에 비취모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비취모의 사용법은 유물 등을 근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즉 하나는 의복류에서의 사용이며, 다른 하나는 장식품에서의 사용 방법이다. 의복에 사용된 방법은 옷감과 더불어 짜서 사용하는 羽織法, 장식품에서는 비취모를 금속판에 붙여 사용하는 點翠法이 이용되었다.

1. 깃털 이용법(1) : 羽織法

羽織法은 깃털을 옷감과 함께 짜서 의복이나 덮개 등에 사용하였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면, 漢代의 文帝, 景帝때 국력이 강성하고 경제가 풍부하여 “天子가 黼衣를 착용하고 翠被를 걸쳤다”고 하여²⁴⁾ 당시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나타내었다. 翠被가 어떤 형태의 의복인지는 알 수 없으나, 翠羽毛를 이용하여 잔裘형태의 복식이 아닌가 한다. 또 宋代의 기록인 《埤雅》에서도 荊王이 被를 翠羽毛로 장식했다고²⁵⁾ 하는데 이 역시 “翠被”를 설명한 것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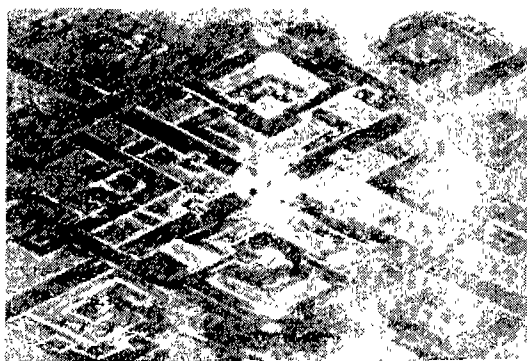
의복의 형태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깃털을 絹과 함께 짜서 관을 덮는 덮개로 쓰인 것이 湖南 長沙 馬王堆1號 漢墓에서 출토되었다(도 4). 깃털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絹과 함께 짜여져 마름모 무늬를 이루고 있다. 색상을 적절히 조절하여 문양을 두드러지게 장식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기원전 2세기 경에 이용된 羽織法의 수준을 가늠할 수

22) C. M. Perrins · A · L · A. Middtton, 112.

23) 樓井良三, 186.

24) 《漢書》卷 96下, 3928 : 殊方異物四面而至……天子負黼衣襲翠被

25) 《埤雅》卷 9, 13.



(도 4) 羽毛織物(《長沙 馬王堆1號 漢墓》,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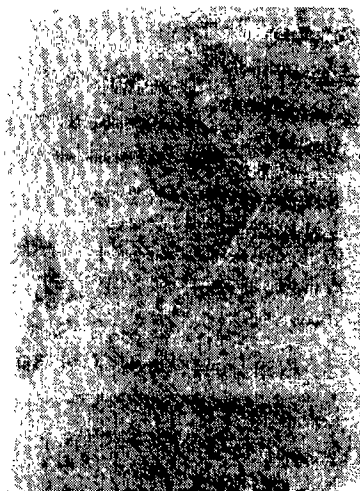
있게 하며, 翠被 역시 새의 깃털을 견 등의 직물과 함께 짠 옷감으로 재단된 것으로 보인다.

唐代에 이르러서 새의 깃털을 이용한 의복이 크게 유행되었다. 특히 안락공주가 百鳥裙을 제작 착용한 후, 새 깃털을 이용하여 만든 옷이 전례없이 유행되었다. 《新唐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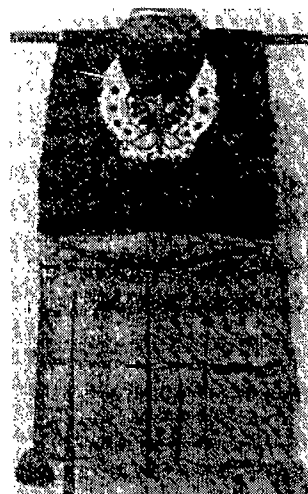
안락공주가 상방원에 여러 가지 새 깃털을 이용하여 치마를 만들도록 하였다. 정면에서 보는 색이 다르며, 옆면에서 보는 색이 각기 달랐다. 한낮에 보면 또 다른 색으로 보였고, 그늘에서 보면 또 다른 색으로 보였다. 마치 온갖 새가 다 있는 것 같이 보였다. 한 별은 위 후에게 바쳤다.²⁶⁾

安樂公主가 尙方院에 명하여 만들게 한 후, 그 유행은 급속히 아래로 파급되었다. 관리 등 귀족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를 모방하고자 하여 전국에 있는 새들은 물론 동물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그 깃털을 옷 만드는데 사용하였다.²⁷⁾

의복으로 제작된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중국에서의 문헌 자료에 관한 것을 뒷받침해 줄 자료가 있다. 즉 일본 정창원 소장의 “鳥毛立女屏風”



(도 5) 鳥毛立女屏風(《世界の美術》, 11-164)



(도 6) 揚羽蝶文様鳥毛陳羽織(《日本の染織》, 도 13)

(도 5)이다. 이 병풍은 일본 天平 勝寶 4년(752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는 중국의 唐 天寶 11년에 해당된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밀접한 문화적 교류를 맺고 있던 시기로,²⁸⁾ 병풍에 묘사된 여자는 唐代에 유행된 화장과 머리모양으로 치장을 했고, 치마를 가슴까지 올려 입었다. 이러한 특성은 唐

26) 《新唐書》卷 34, 878 : 安樂公主使尙方合百鳥毛織二裙, 正視爲一色, 傍視爲一色, 日中爲一色, 影中爲一色, 而百鳥之狀皆見, 以其一獻皇后

27) 《朝野僉載》卷 3, 16 : 百官百姓家效之, 山林奇禽異獸搜山滿谷掃地無遺至於網羅殺獲無數

28) 《天平の美術・2》, 東京 : 學習研究社, 1991, 202.

風으로 天竺 때 유행된 것이다. 특히 3면에 묘사된 여자 上衣 부분에서 깃털이 발견된다.²⁹⁾ 비록 병풍에서는 여자의 상의부분에 깃털을 붙인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百鳥裙”과 같은, 옷감에 깃털을 넣어 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또 이 때 보여진 羽織法의 전통은 그 이후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즉 16세기 桃山時代에 제작된 하오리[羽織]에서 우직법의 전통을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揚羽蝶文様烏毛陳羽織”(도 6)의 상의부분은 검은 색 깃털을 짜 넣은 것으로 만들었고 등에 장식된 나비문양은 흰색 깃털을 넣어 짠 것이다.³⁰⁾ 제한된 자료이기는 하나, 일본에서도 우직법으로 의복을 제작한 전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예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진골녀 역시 이러한 우직법으로 제작된 裱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2. 깃털이용법(2) : 點翠法

點翠란 “首飾類貼以翡翠羽者”로, 首飾 등의 장신구에 비취 깃털을 붙이는 것이라 정의되었다.³¹⁾ 점취법은 羽織法과는 달리 여러 종류의 깃털을 다양하게 사용하기보다는 翠鳥-청호반새 혹은 물총새 깃털이 주로 이용되었다. 이 기법은 장식품-冠飾, 耳飾, 面飾-에는 물론 장식장에도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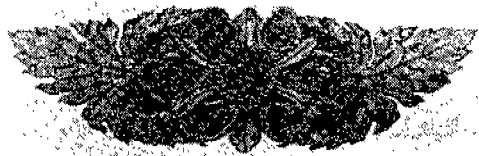
장식장에 이용된 예는 戰國時代의 기록인 《韓非子》에서 볼 수 있다. 즉 “楚人有賣其珠於鄭者, 爲木蘭爲櫃, 薰桂椒之櫃, 綴以珠玉, 飾以玫瑰, 輯以翡翠”라³²⁾ 하여 楚나라 사람이 주옥·玫瑰·翠毛 등으로 櫃를 장식했는데, 櫃가 다른 어느 보석보



(도 7) 귀고리(《中國歷代婦女妝飾》, 156)



(도 8) 面花을 한 여인(《中國藝術史》, 148)



(도 9) 首飾(《清代服飾展覽圖錄》, 168)

다도 아름다워 鄭나라 사람이 그 櫃만 사고 보석은 물렸다고 한다. 여기서 언급된 “輯”은 “모아 붙인다[粘貼]”는 뜻으로 풀이되며,³³⁾ 이것으로 미루어 중국에서의 點翠法은 일찌기 기원 전 4세기 경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장식기법은 漢代

29) ibid. 141.

30) 《日本の染織》卷 2, 東京: 中央公論社, 1980, 257.

31) 《漢語大詞典·12》, 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1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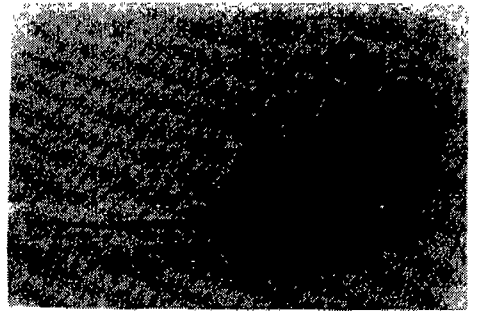
32) 《韓非子》卷 11, 78: 北京: 中華書局, 1989.

33) 《中文大辭典·九》,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 1990, 1743; 《漢語大詞典·12》, 1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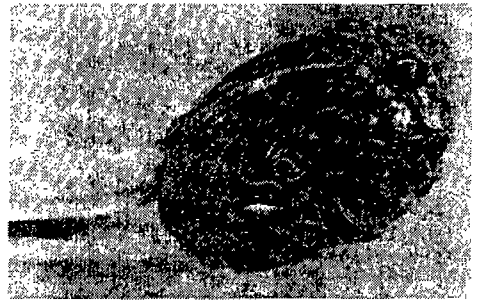
에서도 여러 장신구에 이용되었고, 상당히 정교하게 제작된 유물도 남겼다. 吉林의 榆樹大坡老河深第56號 漢墓에서 출토된 귀고리(도 7)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짙은 청색 翠毛로 만들어졌고, 그 보존상태 또한 매우 우수하며 제작기법 역시 후대의 것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귀고리에 이용된 점취법이 황태후 등의 冠飾에도 이용되어 《後漢書》에 의하면 태황태후·황태후 入廟服에 착용하는 首飾에 봉황이 있는데, 이를 비취모로 장식한다고³⁴⁾ 하였다. 또 《洛神賦》에도 “黃金翠羽로 釵冠을 장식한다”고 하였다.³⁵⁾ 따라서 점취법은 수식 관식 이식 등에 다양하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唐代에서 특히 유행한 面花(도 8)에도 點翠를 이용했다.³⁶⁾ 《留青日札》에 面花를 설명하기를 “翠羽로 둥근 모양이나 봉황, 매화 누각 모양으로 자고 감쪽하게 만들어 이마에 붙였다”고 하였다.³⁷⁾

이후 중국에서 점취법은 清代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녀들의 장식품에 다양하게 이용되었으며, 청호반새의 청색 깃털과 물총새의 녹색 깃털을 적절히 섞어 장식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도 하였다(도 9).

우리나라의 경우, 점취법이 사용된 裝飾物은 조선시대 부녀의 비녀 떨잠 노리개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유물의 상태에 따라 剝落이 심해 그 흔적만 남은 것도 있으나, 대체로 비취모가 사용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비취모를 금속판 모양에 맞게 오려 魚膠로 금속판에 접착시켜 장식하였기 때문에, 비취모가 떨어져



(도 10) 도금비취쌍조잠(《관모와 수식》, 105)



(도 11) 도금비취매죽잠(《관모와 수식》, 123)

나갔어도 어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새에 비해 翠鳥科에 속하는 물총새 청호반새등의 깃털은 그 색상이 선명하고 다양하며, 깃털간의 간격이 치밀하고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조류보다 이들의 깃털이 장식품에 많이 애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취모가 장식된 유물들은 그 기법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혹은 琺瑯으로 잘못 명명되어 있기도 하다.³⁸⁾ 그러나 點翠와 琺瑯은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정제되어야 할 것이다.

비취모는 《三國史記》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34) 《後漢書》志 30, 3676.

35) 《藝林彙考》卷 3, 12; 北京: 中華書局, 1988.

36) 《埤雅》卷 9, 13.

37) 《藝林彙考》卷 4, 10.

38) 《관모와 수식》의 p.123에는 ‘琺瑯胡桃簪(Enamel Walnut Jam)’이라고 명명되어 있으나, 이것 ‘점취법’으로 장식된 것으로, 바로 그 앞에 있는 ‘琺瑯木蓮簪’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비취모는 새의 깃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어진 깃털 모양이 보이며, 법랑으로 만들어진 것은 광물성이 고온에 녹아져 어떠한 무늬도 없다. 또 이들이 剝離될 때 역시 차이가 있어 법랑의 경우에는 깨어진 형태로 떨어지지만, 비취모의 경우에는 깃털의 결에 따라 떨어져 나간다.



(도 12) 떨잠(《운양민속박물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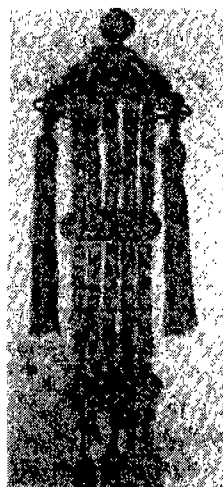
(도 13) 노리개(《복식》, 86)

왕비나 진골녀 등 상류층에 국한되어 사용된 진귀한 장식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명칭을 嘉禮都監儀軌 및 件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鍍金비취雙鳥簪, 鍍金비취梅竹簪”의 명칭이 있다.³⁹⁾ 이것이 점취로 장식된 비녀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翡翠라고 하면 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翡翠”라는 명칭이 나오면 그대로 玉으로 간주하나, 翡翠玉에는 도금을 할 수 없고, 금속판에 翠毛를 붙이는 것이 점취법이라는 것과 연관시킨다면 도금비취는 도금한 금속판에 비취모를 붙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鍍金비취쌍조잠은 한 쌍의 새를 비녀머리를 도금한 뒤에 점취로 장식한 것이며, 鍍金비취매죽잠은 비녀머리를 梅竹으로 한 도금판에 취모를 붙인 것이라 하겠다. 이들의 예를 박물관에 소장된 비녀에서 찾아 제시하면 <도 10>과 <도 11>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이 외에도 떨잠 등에서 나비, 새, 구름모양 등의 금속판을 點翠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도 12). 또 노리개 등의 패식에서도 점취법이 많이 애용되었다. 삼작노리개(도 13)에서는 산호와 밀화를 고정시킨 부분과 백옥에 씌운 나비판에서 剝落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비취모로 장식된 것을 알



(도 14) 밀화불수노리개(《조선조말기왕실복식》, 168)



(도 15) 비취발향노리개(《服飾》, 85)

39) 김용숙, 《宮中撥記의 研究》 《鄕土서울》 제 18, 1959, 101~103에서 재인용.

수 있다. 또 <도 14>는 밀화노리개로 主體를 고정시킨 부분에 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는 비취모를 볼 수 있다. 또 비취발향노리개(도 15)의 경우에는 향에 취모를 그대로 올려 붙여 사용했는데, 이 발향의 취모는 더러 박락되었으나 녹색에 가까운 청색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온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비취발향노리개는 질은 남색으로⁴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우직법에서와는 달리 점취법일 경우에는 翠鳥料가 주로 이용되었는데, 이는 그 색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과 청색이 많이 선호되었다. 점취법의 사용이 재료 혹은 사용범위의 제한 등으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를 보편화시키고자 한 것이 칠보의 도입이 아닐까 한다. 칠보로 가공된 장신구는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거기에 이용된 색상은 비취모와 같은 녹색과 청색이 많다. 또 칠보장식의 장신구와 점취법으로 장식된 같은 유형의 유물과 비교해 보면, 점취법으로 만들어진 유물의 연대가 훨씬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통일신라 흥덕 왕 복식금제에 있는 翡翠毛는 물총새과에 속한 물총새, 청호반새, 호반새 깃털 등을 의복과 장신구의 장식에 羽織法과 點翠法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우직법으로 만든 유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으나, 중국과 일본의 문헌 및 유물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사용도 짐작할 수 있다.

우직법으로 의복을 제작할 경우에는 깃털이 반드시 翡翠에 제한된 것은 아니었고 다양한 색상의 깃털이 모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취법일 경우는 대체로 청호반새와 물총새의 녹색, 하늘색, 짙은 청색 등이 선호되었다. 점취법은 점

차 칠보기법으로 대체되었어도 청색 혹은 녹색의 선호는 계속 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에도 중국, 일본과 같이 새의 깃털을 옷감과 함께 잔직물로 제작된 의복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고, 점취법으로 장식된 장신구류의 사용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점취기법은 조선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어 많은 유물에서 그 전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金富弼《三國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69년.
- 《韓非子》臺灣, 中華書局.
- 《埤雅》臺灣, 商務印書館.
- 《新唐書》臺灣, 鼎文書局.
- 《朝野僉載》上海, 商務印書館.
- 《天平の美術》東京, 學習研究社, 1991年.
- 《온양민속박물관》한국, 온양민속박물관, 1983년.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服飾》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년.
- 김영숙 《朝鮮朝末期王室服飾》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년.
- 석주선 《冠帽와 首飾》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3년.
- 周迅·高春明 《中國歷代婦女妝飾》臺灣, 南天書局, 1988年.
- 《中文大辭典·九》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 1990年.
- 《漢語大詞典·12》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年.
- 《世界の美術館：ベルリン美術館》東京, 講談社, 1970年.
- 國立故宮博物院編輯委員會 《清代服飾展覽圖錄》

40) 온양민속박물관 제1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음.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6年.

- David M. Wilson, *The Collections of the British*, London, British Museum Publications Ltd., 1989.

ABSTRACT

A Study on the Bee-chy-mo

Bee-chy is the name of a bird as well as of a jade. This study is about Bee-chy-mo which only Royalty had used in the Shilla period.

Bee-chy is a bird which belongs to Alcedinid-

ae, and is called as "Ruddy Kingfish", "Black-capped Kingfish", "Common Kingfish". It is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only except for the South Pole. The colors of Black-capped Kingfish and Common Kingfish's feathers are *bright green or deep blue*.

The feather was so beautiful that people already used it in ancient China. Feather garments as well as decorations with Kingfish feathers were popularized in Tang period. Bee-chy-mo was used by attaching Kingfish feathers to decorations or weaving clothes with Kingfish feathers.